



# 한울림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신년 감사예배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김은희자매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설교자

오늘까지 복과 은혜(찬 551)

나는 오늘도 가네

예수는 내 힘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여서

“다시 일어섭니다”

사도행전 10:44-48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신년감사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큐티책 1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나 담당자(박순정)에게 신청해주세요. (1년-\$54, 6개월-\$27)
4.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5.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6.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전례에 없던 대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만큼 희생자가 나왔고, 난리는 아니지만 난리만큼 삶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2020년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2021년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재 백신이 투여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울림교회가 새예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봄이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난 5년간 기도하며, 정성을 쏟으며 기다려온 입당이 금년에는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교회적으로 새해는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모든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짐 너머의 구체적 실행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년주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새로운 다짐과 실천 그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